

박여범의 소중한 일상

기억하자 꺼내보자

케이크를 주문 제작했다. 다가올 어머니의 '철십팔 회 생신 잔치'를 위해서다. 연세가 있으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어머니. 걱정하는 자녀들의 민투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집에서 직접 해 드시려고 한다. 자녀들을 위해 본인의 생일인에도 며칠 전부터 밀반찬부터 바지런히 움직이신다.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다.

그래서 올해에는 외식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다행하게도 '고기'를 드시고 싶다고 하셨다. 자식들 부담 주시지 않으려고 불고기·낙지를 예약하셨다. '고기'도 종류가 많은데 본인이 드시고 싶은 저렴한 음식을 선택하셨다.

아침에는 찬밥에 몸이 움츠러들기도 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 전날 내려온 차제, 천안에서 달려온 처남, 그리고 전주의 우리부부, 손자들과 함께한 '불고기·낙지' 식사는 맛은 있었지만, 부족한 생각을 지울 수는 없었다. 더욱 반가운 것은 식사 장소에서 한동안 별지 못했던 처의 이모와 이모부를 만나 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병원 진료로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건강하심에 감사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주문 제작한 케이크에 촛불을 밝혔다. 그리고 손뼉을 치며 한마음으로 생신 축하노래로 함께 했다. 그런데 식사를 하며 농담 삼아 말씀하신 아버님의 축가가 분위기를 울려 주었다. 첫인상이 코스모스를 닮은 어머니를 기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불러주신 노래는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익숙한 가사였다.

198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 김삼희의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노래 김삼희, 작사 하중희, 작곡 김강삼,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 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 길을 걸어갑니다. 기다리는 마음같이 초조하여라-(중략)-걸어온 한숨이 이슬에 맺혀서, 찬바람 미워시 꽃 속에 숨었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 있는 길~)이라는 노래를 부르시며, 흥에 겨워



박 여 범

웅북중학교 교사·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춤까지 보여주시는 아버님을 바라보며, 소녀처럼 웃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부끄러운 소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나만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버님의 축하곡에 이어 어머니의 '꼬부라진 할미꽃~'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여기에 얼마 전부터 교회에서 성악을 개인지도 받는 처남이 '눈'이라는 멋진 노래를 아파트가 떠나가라 불러주었다. 앙코르에 박수가 범람하는 현상은 아쉬움으로 멋지게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기억에 남을 생신 잔치를 마무리하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광범한 가정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생일 풍경이길 희망한다.

2002년 서울 월드컵이 열리기 몇 개월 전,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소천하셨다. 추억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몇 장 남지 않는 사진이 전부다. 머리에 남아 있는 아버지가 낯선 시간이 종종 있다. 세월의 흐름 속에 과거가 되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보다 '죄송스러움과 미안함'이 먼저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족의 생전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이다.

지난 추석에는 까마득한 세월을 견어내고 가족사진을 찍는 대형사고가 있었다. 흰색 옷으로 통일하고 전 가족이 모여 사진 촬영을 하던 날,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요양원 생활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어머니가 아픈 손가락이다. 하나님 이 지켜주셔서 건강하신 아버지 어

머님의 생신 잔치와 가족사진 촬영을 통해 다가올 우리 부부의 미래를 들여다보는 시간도 빼놓을 수 없었다. 다양한 덕담으로 함께 한 시간 속에서 다시 십일월 '김장하는 날'을 잡고 각자의 처소를 발길을 돌렸다. 어린 시절 명절이나 생신이면 서울에서 생활하는 형님과 누님들을 기다리시던 생전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다. 동네 어귀에 나가 서성이던 아버지의 그림자를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시절, 나는 시골을 벗어날 생각만 했었다. 비록 지질하게 가난해도 그곳이 좋음을 알게 된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그래서 나와 내내는 어린 시절 경험했던 아련한 부모님의 '기다림'을 자녀에게 최대한 '부담 아닌 부담'으로 자리 잡게 하고 싶지 않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언제 오니?', '오늘 뭘 상때는 어때?' 등 다양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자녀가 되지 않을까?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가능하면 자녀와의 추억은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 너무나 짧은 세상살이에서 그 정도는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라 생각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마음은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한다. 방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주말이나 공휴일 휴가 등을 활용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주변의 공원이나 뒷동산을 걸으

며, 아끼자끼한 추억의 저금통을 채워보자.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생명을 먹여 살릴 수 있듯이, 우리가 실천하고 만들어가는 소중한 일상들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빅이벤트나 특별행사로 만족함을 얻으려 하지 말자. '커피 한 잔', '따뜻한 한 마디의 말', '보이지 않는 기도와 배려'에 감사한 일상의 한 페이지를 남길 수 있는 순간순간에 집중하자.

'말뚝달록 울려진 과일 전시장에 새하얀 생크림 케이크 요거트 춤추고'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일흔여덟 촛불 불다불게 부끄러워 이글이글 타오르고

코스모스 넘실대는 '늦익은 곡조에 웃음으로 주인공은 소녀인 듯 반긋 반긋'

그렇게 부끄러워 넘쳐나는 고운 목소리에 힘지막 시어진 김치처럼 시렁이 이어진다'

-시인 박여범, 기억하자 꺼내보자 중에서-

어머니가 방긋방긋 던져주신 웃음, 어느 가수의 노래보다 감동을 안겨준 아버님의 노래와 춤, 성악가의 웅장함으로 우리를 놀라게 한 처남, 동영상 촬영과 박수로 웃음바탕을 만들어 준 가정엔 영원히 잊지 못할 '어머님의 철십팔 회 생신'을 기억하자. 그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나누고 꺼내보자.

수채화처럼 높고 높은 가을 하늘에 선명한 기억을 꺼내보자. 가끔은, 아주 가끔은, 스마트폰을 통해 시각과 청각을 만족시켜주는 노래와 춤에 웃음까지 다량했던 잊지 못할 어느 가을날의 생신을 기억하자. 항상 웃고만 살 수 없는 현실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짧지만 강렬했던 어머니의 일흔여덟 생신과 햇살 가득 행복한 시절의 어느 날을 기억하자.

의 면허증 반납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면허증을 가진 반납하면 교통카드 또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층 교통사고를 줄이는 일은 정부의 노력이나 예산만으로는 어렵고, 사회 전체가 다 같이 노인에게 대한 관심으로 교통사고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최혜진 고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독자제언

우리나라의 노인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비율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람의 신체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운동능력과 정보습득 능력, 인지능력 및 상황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감소하기 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은?

해서는 우선 운전면허 갱신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 가능 여부를 객관적·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단계별 갱신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또한, 운전 시 요구되는 세부사항을 교육

등을 통해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고령운전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의 크기를 크게하거나 시인성을 강화하는 등의 작업도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운전자들

사설

성장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잡아야겠다. 일자리가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무슨 사업을 유치하든 그게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야 한다. 일자리와 무관한 사업이라면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광역 시도보다 열악한 게 많다. 그중에 일자리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 그 때문에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보가 즐기게 지적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전북도는 최고 관심사를 일자리 창출 쪽에 두겠다고 반복해 천명한 바 있다. 전북도는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전북도는 귀를 열어야 한다.괜찮은 일자리인 정규직은 좁은 문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기간제나 시간제 일자리도 줄고 있다는 불만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점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일자리 창출 약속이 어떻게 돼 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 일자리 창출을 말로만 해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 미취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

간제나 기간제 취업자들도 바라는 바는 한결같다. 그것은 바로 정규 일자리이다. 그런데 그 정규 일자리 창출의 약속들이 식언이 되어버렸다.

전북도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지역 성장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우리 지역의 일자리 현황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 없다.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닐 테고 능력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저번에 도내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아 심각한 상태이다. 도내 일자의 상황이 이런데도 이마를 짚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 노력과 병행하여 우리 지역 일자의 수준을 높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성장 패러다임을 일자리 창출로 집중해 보여 달라는 것이다. 도내에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도내의 많은 업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인구 감소 문제 고민은 하고 있는가?

전북도는 인구 감소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예전처럼 말로만 대책은 반감지 않는다. 이 어려운 때에 전북도는 희망의 근거가 돼줘야 한다. 그럴듯한 말만 하면서 희망의 근거가 되어 주지 못하면 인구 감소가 계속될 게 뻔하다. 전북도는 군산시민과 남원시민에게 마음을 주어야 한다. 정부가 군산을 위기 특별지역으로 계속 지정하고 있지만 피부에 느껴지는 효과는 미미하다. 나뭇꾼을 풀어서 군산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나타냈지만 난항의 연속이다. 남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남대의 폐교 이후 그 대안으로 의대를 들여야 한다는 말이 어쩌다 간헐적으로 나오다 있을 뿐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해보는 데까지 해보아야 한다.군산 살리기와 함께 남원 살리기를 병행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피해 해진 도내 도시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북도는 저번에 투 트랙 전략으로 돌파구를 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게 정말이지 오래전의 발언이다. 전북도의 그 발언 그대로 희망의 근거가 돼 주었

는지 확인해줄 일이다. 도민들은 거둬들인 경제 우환으로 불만이 가득하다. 바라는 일자리 창출은 적고 영양가 없는 미래 희망만 날발되고 있으니 왜 아니 그러겠는가.

전북도는 지금의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전력투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결해야 할 일거리가 산더미라기가 질려 그러리라는 짐작이지만 전북도는 팔소매를 걷어부쳐야 한다. 전북도는 자존을 말하고 재문 찾기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갈수록 어려운 것 투성이다. 지난 날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이런 식이라면 곤란한 일이 계속될 터이다. 그 곤란한 일이란 바로 인구 감소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도민의 바람과는 반비례하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니 참으로 난감하다. 지금 전북도가 이루어낼 목표는 뚜렷하다.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일자리 마련이 잘 안된다면 젊은이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전북도는 그들의 동향에 민감해야 한다.지금도 젊은이들의 유출은 계속되고 있을 터이다. 전북도 인구 감소와 관련된 고민하고 긴장하는 자세가 되어야겠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